

「화체개현」 _ 조지훈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꽃망을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아 여기 태고(太古)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래가 꽃잎을 적신다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 조지훈, 「화체개현(花體開顯)」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석류꽃 개화의 순간에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짧은 여름밤이 사라지는 순간 섬돌 위에 석류꽃이 터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방안’ 가득히 석류꽃이 물들어 오며 석류꽃 안에 화자 자신이 들어가 앉는다고 하면서 석류꽃이 개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동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새벽 등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와 ‘방안’으로 물들어 오는 상황을 석류꽃의 개화를 빌려 나타낸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1연: 무념무상과 몰아의 경지
- 2연: 섬돌 위에 터지는 석류꽃
- 3연: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석류꽃의 개화
- 4연: 석류꽃의 개화에서 느끼는 감동

✓ 주제 : 생명 탄생 순간의 감동

- ①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짧은 여름밤’)가 활용되고 있다.
- ② ‘석류꽃’과 ‘바다’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다.
- ③ 시구의 반복을 통해 석류꽃 개화에 대한 감동이 강조되고,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석류꽃의 꽃망울이 터지면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은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⑤ 2~4연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이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의 시선 이동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⑥ ‘방안’은 화자가 석류꽃과 합일되는 충만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⑦ 이 작품은 생명 탄생의 순간을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 그리고 생명 탄생의 순간의 신비와 화자의 감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⑧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는 생명 탄생의 신비 속에 화자가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⑨ ‘꽃망을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⑩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의 신비와 감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THE - 깊은 독해]

* 제목 '화재개현'은 꽃의 몸체가 열리면서 드러남, 혹은 꽃봉오리가 터지면서 빛남이라는 뜻이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 화자가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어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제시된다. 이는 다음에 나오듯이, 화자가 석류꽃의 개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며, 개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1연 : 아무 생각 없이 벽에 기대어 있음.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우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 짧은 여름밤이 금방 지나가고, 섬돌 위에 석류꽃이 핀 상황이다. '짧은 여름밤'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석류꽃이 터진다'는 표현은 석류꽃의 개화를 나타내고, '문득', '터진다'라는 표현을 통해 개화의 순간성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유발하였다. '섬돌 우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는 표현을 석류꽃의 개화를 햇살이 떠오른 것에 빗댄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2연 : 석류꽃의 개화

꽃망을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 (석류꽃의 개화가)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물결의 움직임과 같다는 뜻으로, 석류꽃 개화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석류꽃의 꽃망울이 터진 것을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아, 생명 탄생을 새로운 우주의 창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 탄생의 경이감이 드러나고 있으며,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개화의 감동을 나타내고 있다.

아 여기 태고(太古)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래가 꽃잎을 적신다

→ (석류꽃의 개화가) 아득한 옛날의 바다에서 일어난 물보래가 석류 꽃잎을 적신 것이라는 뜻으로,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이 드러나고 있다. 위와 같이 영탄적 표현('아')을 사용하여 개화의 감동을 나타내고 있다.

▶3연 : 석류꽃의 개화의 경이로움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 석류꽃의 느낌이 화자가 있는 방안까지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다. 개화에 따른 감동으로 인해 석류꽃의 이미지가 방안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때 '방안'은 화자가 석류꽃의 충만감을 느끼는 공간일 것이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

→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다. 화자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는 것은 화자와 석류꽃이 하나가 된 상황이다. 화자와 자연('석류꽃')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풀아일체의 경지가 나타난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 석류꽃의 개화를 체험한 상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석류꽃과 일체가 된 감동의 표현이며, 이를 한자어로 '무아지경', '플아'의 경지라고 한다. 이 표현이 1연과 4연에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감동이 부각된다.

▶4연 : 석류꽃의 개화에서 느끼는 감동

#같은 작품, 다른 독해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제목은 <아침>이었다. 이러한 제목을 고려하고 작품을 독해하면, 새벽에 동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와 방안으로 물들어 오는 상황을 석류꽃의 개화에 빗대어 나타낸 작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석류꽃'은 떠오르는 해를 비유한 표현이 된다. '석류꽃이 터진다'는 햇살이 구체화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새로운 우주'는 햇살이 펼쳐지는 것을 새로운 우주의 열림으로 보아 우주론적 생명관을 보여주는 표현이 된다. '파동'은 햇살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방안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는 것은 방안에 햇살이 가득 차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되며,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 것은 햇살 속에 화자가 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1연은 동이 뜨기 전의 모습을, 2연은 새벽 동이 트는 모습을, 3연은 햇살이 펼쳐지는 모습을, 4연은 햇살이 방안에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된다. 주제는 햇살이 펼쳐지는 과정의 신비한 체험 정도가 될 것이다.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걸으로 드러나 있음
[석류꽃의 개화를 관찰하는 이]
- 상황 : 벽에 기대 여름밤을 보내며 석류꽃이 피는 상황을 목격함
- 정서·태도 : 생명 탄생의 감동, 경이감, 신비로움, 풀아일체

[연 관 - 기 출 문 제]

해당 작품은 기출 이력이 없기에
연관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읽기 자료로 이를 대체합니다.

#이해와 감상

이 시의 제목은 1952년에 나온 시집 <풀잎 단장>에서는 <아침>이다가 1956년 <조지훈 시집>에 이르러 <화체 개현>으로 바뀌었다.

1연은 시적 화자의 무념무상, 몰아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 자세에서 이미 나는 현실적인 세계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다면 '섬돌 위에 석류꽃이 터지'는 화체 개현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실눈을 떴기에, 몰아의 경지에 있었기에 꽃은 내 앞에서 활짝 피었다. '피다'가 아니고 '터지다'라고 함은 짙은 주홍색의 여섯 개의 꽃잎을 지닌 꽃이 피는 모습이 마치 고여 있던 피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시인에게 보인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희랍인들은 석류가 디오니소스 신의 피에서 생겨 나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석류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그 색깔보다 오히려 그 모양과 내적 구조에서 생긴다. 그래서 복잡다양한 것을 뚜렷한 통일로 조화시키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석류를 보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우주의 통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지훈 역시 3연에 이르러 석류꽃이 핼을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으로 본다. 꽃 한 송이 속에서 문득 시인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읽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우주의 탄생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꽃잎을 적시는 태고적 바다의 소리없는 물보라'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보편적 수평'으로 4연의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 시적 자아의 공간을 완성케 하는 매체가 된다. 이 시에서 꽃은 '시인이 존재하는 우주이며 모든 번뇌와 환희를 의탁한 몰아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전공자의 시선 [출처 : 김옥순, 국립국어연구원]

조지훈(1920~1968)의 시 '화체개현'에서는 햇살의 신비 체험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인가 작업하느라 밤을 새운 시인에게는 여름밤이 짧기만 하다. 밤새 켜 놓은 촛불이다 닳기 전에 새벽 동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온다. 햇살의 구체화된 형상이 석류꽃이다. 몽우리였던 꽃의 피는 모습, 자라는 모습을 고속 촬영한 것을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로 보면 꽃이 순식간에 전속력으로 연속적으로 피어난다. 전신의 힘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다. 그 모습은 마치 여자가 잉태했던 아이를 전신의 힘을 다하여 낳는 과정에서 양수(최초의 물)가 터지면서 양수로 보호되었던 아기가 세상에 탄생하는 것 같다. 여성의 자궁 속 양수는 뱃속의 아기에게는 태고 적 바다의 소리없는 물로서 막혔던 바닷물이 물보라로 터지는 것처럼 터져 신생아를 스치는 것이다. 해에 관한 말은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지만, '해돋이'는 '꽃 피기'와 '아이 낳기'의 비유를 거쳐 시인의 창작하기로 이미지가 흘러간 다.

<아이 낳기>	<꽃 피기>	<해 솟기>	<창작하기>
최초의 물인	석류가	새벽	내가
양수가	꽃망울	동이	(상상력을)
터져	터져	터	펼쳐
아기가	꽃잎이	햇살이	(작품을)
탄생한다	생긴다	펼쳐진다	낳는다

아기를 낳기 전,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새 생명을 잉태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고대 신화에서 바닷물이 갈라져 우주가 열리는 그런 힘든 체험과 같고, 해가 새벽이 오면 다시 동이 트려고 전력을 다해 조금씩 조금씩 하늘로 솟아 올라 온 우주를 환히 비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새벽 동이 터져 펼쳐진 햇살은 꽃잎의 개화로 비유된다.

'태고 적 바다의 소리없는 물보래'란 비유는 바닷물 자체의 비유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방죽을 터서 사정없이 순식간에 흘러 넘치듯이 햇살이 펼쳐지는 과정, 꽃잎이 펼쳐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아기를 보호했던 양수처럼 태고 적 바다가 보호했던 어떤 대상을 밖으로 펼쳐지게 하는 어떤 강한 힘의 파동으로 비유된 것이다. 아침 해가 솟아올라 그 빛살이 만물을 환히 비추는데 방안에 있는 시인에게는 바닷물결의 파동으로 확산되어 물보라가 방안으로 스며들어 온 방을 적시듯이 햇살이 방안에 확산되는 모양을 석류꽃의 개화 이미지와 결합하여 표현한다. 햇살이 물보라처럼 퍼지면서 아름다운 석류꽃 모양으로 퍼져 그 안에 시인인 내가 들어 앉게 된다.

이 시에서 해돋이는 단순한 일상사가 아니라 '잉태'의 사건이자 '꽃 피우기'란 태초의 창조적 행사가 반복되는 신화적 축제의 순간이다. 시간적으로는 밤에서 아침으로의 전환이고, 공간적으로는 밤새 방 안을 밝힌 촛불의 이미지가 방 밖에서는 온 지구를 비추는 아침 햇살의 거대한 빛의 이미지로 확산된다. 해의 이미지는 이렇게 '불의 이미지→물의 이미지→꽃의 이미지'가 결합된 총체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다. 밤새 밝힌 촛불의 에너지는 해돋이의 거대한 에너지와 결합하여 태고 적 바닷물의 세력으로, 석류꽃의 피어나는 힘으로 다가와 그 에너지가 시인으로 하여금 창작의 몽환적인 신비 체험을 느끼게 한다.